

發 刊 辭

21세기를 향한 오늘의 세계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른 WTO 체제의 출범과 EU, NAFTA등 지역주의가 팽배함에 따라 새로운 경제질서가 구축되고 있으며, 컴퓨터를 주축으로 한 통신·반도체등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기술이 크게 발달하면서 情報化社會로의 이행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의 정보통신 조류는 글로벌화·개방화·자유화·경쟁체제화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통신시장 개방이 가속화되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향후 21세기에 있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정보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賦存資源이 빈약한 대신 우수한 노동인력이 풍부해 고도의 기술 및 두뇌 집약적인 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데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은 그동안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年평균 40% 이상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전자와 더불어 수출 선도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90년대에 들어오면서 밖으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보호 무역주의의 강화, 대내적으로는 노사분규의 심화와 임금 인상에 따른 가격 경쟁력약화, 개도국의 저가격 시장진출 등으로 수출위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의 정보산업 성장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기초 기반 기술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발표·시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정책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를 확대 발족하는 등 정보통신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에서도 핵심기술의 공동 개발 사업을 전개하는 등 동종업계간 협력체제를 유지하며,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나라의 정보산업 전망은 밝다고 하겠습니다.

본사가 韓國電子工業振興會와 공동으로 情報産業年鑑을 발간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95 정보산업연감에는 세계 정보산업 현황과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실태·추진방향등 여러분야를 최신자료와 함께 5장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동 연감이 그동안 10여년에 걸쳐 발간되어 오면서 政府의 정책 및 企業의 경영계획 수립등 큰 역할을 한 점을 상기해 볼때 나름대로의 사명과 긍지를 갖게 됩니다.

끝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유용한 년감이 될 수 있도록 집필에 애써 주신 정부·학계 및 업계의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리며, 동 년감이 국가사회의 정보화와 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995년 7월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
代表理事 社長 金 振 億